

# 광주 인구 증가 '가속도'

## 2008년 143만4,628명 ... 증가율 광역시 중 3번째

### 외국인 1만926명 ... 1년 새 19.1% 늘어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인구쏠림 현상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지난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혼인·귀화 등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19.1% 증가하는 등 광주가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2008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51만3021세대 143만4천628명으로 세대당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자 71만2천138명, 여자 72만2천490명으로 남·녀 성비는 49.6 대 50.4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지난해에 비해 0.65% 증가해 광역시 가운데 울산, 인천에 이어 3번째를 기록,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인구 증가수 1만1천168명은 최근 가장 낮은 인구 증가수를 기록했던 2005년 1천191명과 비교할 경우 10배에 달한다.

이는 광주의 산업인프라가 대폭 확충됨으로써 타지역 유입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업유치에 따른 전입인구도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 2007년 1만16명에서 2008년 말 현재 1만926명으로 19.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33.3%로 광주 인구의 1/3, 광산구가 22.7%, 서구가 21.3%, 남구가 14.9%, 동구가 7.8%를 차지했다.

동별로는 인구 3만명 이상인 동이 11개(서구 3, 남구 1, 북구 4, 광산 3)이고, 인구 4천명 이하인 동이 5개(북구 1, 광산구 4)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광산구 신가동으로 1만715세대 5만682명,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광산구 동곡동으로 1097세대 2천559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 40대 인구가 34.1%로 전체인구의 1/3을 차지했으며, 33세 이하의 남성이 높은 반면, 34

구분	인구	증감
2005년	1,408,106	+1,191(0.08%)
2006년	1,415,953	+7,847(0.6%)
2007년	1,423,460	+7,507(0.5%)
2008년	1,434,628	+11,168(0.8%)

세 이상은 여성비가 높고, 80세 이상(남성 5천132명, 여성 1만4천91)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00세 이상 66명 가운데 남성은 6명에 불과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U대회 불조성·홍보 '범시민 지원단' 내달 출범

광주시가 유치에 나선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불조성과 홍보활동을 펼치게 될 범시민 지원단이 다음달 11일 출범한다.

시민 15만명이 활동하게 될 범시민 지원단은 U대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5월23일까지 U대회 홍보 캠페인, 질서, 청결운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오는 4월계 진행될 국제대학교 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의 현실사에서 광주시민들의 U대회 유치 열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범시민 지원단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시민 지원 추진협의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범시민 지원 추진협의회는 체육계, 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등 5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성별과 연령에 제한 없이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지원단을 모집한다. 범시민지원단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구청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범시민 지원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행사 참여·기여도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 초청 등 혜택을 부여하고,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5일 오전 다목적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적십자봉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들의 기부문화 확산과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를 위한 '2009 적십자 행복나눔 및 사랑의 등불 점화식'을 가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자영업자 59% "귀성 포기"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설에 귀향을 포기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전화번호부에 따르면 지난 5~13일 자영업자 1천100명을 대상으로 '설날 계획 및 경기불황 체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47명(58.8%)이 '귀성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귀성을 포기한 이유로는 '귀향 및 명절 차례 비용부담 때문'이 267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짧은 연

휴'(31.1%), '연휴 중 영업'(18.4%) 등이 뒤를 이었다.

불황의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92.5%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급감 또는 감소했다'고 답했고 매출이 평소와 비슷하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경기 완화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는 '원가절감'(42.6%), '서비스 개선 및 영업방식의 변화'(27.1%), '투자 규모 확대'(11.6%)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 귀성길 25일 오전·귀경길 26일 오후 '혼잡'

## 국토부, 설 연휴 교통 전망

국토해양부는 설 연휴 기간에 귀성길은 25일 오전, 귀경길은 26일 오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량이 몰리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해 고속버스는 평시보다 1천73대 추가 투입하고, 열차도 556량 증차하

기 못했다.

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3.3% 증가한 총 2천81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는 지난해 설 대비 2.4% 늘어난 하루 평균 34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설보다 연휴가 하루 짧은 탓에 귀경길은 부산~서울이

최대 9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등 전체적으로 이동 시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귀성길은 서울~대전이 4시간, 서울~부산 7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서서울~목포가 7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귀경길은 대전~서울 6시간 30분, 광주~서울 8시간 30분, 목포~서서울 8시간 50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44분

달돋이 23시 36분  
달질 10시 36분

**씨뿌린 겨울 하늘**

구름이 많겠으며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겠다.

구분	구름	기온
광주	구름 많음	-4/6℃
목포	구름 많음	-2/6℃
여수	구름 조금	-2/6℃
완도	구름 조금	-2/6℃
구례	구름 많음	-7/5℃
해남	구름 조금	-5/7℃
장흥	구름 조금	-6/8℃
고흥	구름 조금	-5/7℃
순천	구름 조금	-3/7℃
영광	구름 많음	-4/5℃
진도	구름 조금	-3/7℃
전주	구름 많음	-5/5℃
남원	구름 많음	-5/5℃
옥산도	구름 많음	2/6℃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목포 05:41 18:00	10:45 23:1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00:18 12:31	06:15 18:41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8	1/6	-2/6	-1/8	2/7	0/7

# 순천만 청둥오리 또 13마리 폐사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청둥오리가 잇따라 폐사한 채 발견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6~8일 순천만 인안교와 대대포구 주변에서 청둥오리 14마리와 흰뺨검둥오리 4마리 등 18마리가 폐사한 상태에서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4일까지 청둥오리 13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8일 폐사한 청둥오리떼가 바닷물에 밀려 폐사상

태로 발견된 것 같다"며 "농약이 묻은 먹이를 먹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수의과대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순천만에서 청둥오리떼가 잇따라 폐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한기자 light64@

# 불법파업 집회·시위 사범

## 검찰, '구형 기준표' 마련

검찰이 불법 파업 및 집회·시위 사범에 적용할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일관되고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최근 5년간 노동·집단사범 1천400여 명의 판결문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30등급의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표는 불법 집회·시위 및 파업을 ▲비폭력(5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기고 여기에 가담 정도, 파급 효과, 피해 정도, 동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 단계 회원 수십 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0여 명이 다치고 전경버스가 파손된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본등급은 '흉기사용 폭력'이어서 14등급이다. /연합뉴스

**천마(天麻)는 '아들에서 떨어져 마비가 되는 증상을 치료했다' 하여 이를 붙여진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써, 무주군이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